

##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 축구해설위원 이영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다

### 피플 인사이드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이영표가 우리 회사를 찾았다. 기업 강연은 하지 않기로 유명한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섬의 메일의 한 문장이었다.

그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삶의 철학이 막중한 사명감으로 해외 건설에 앞장서는 사우들에게 응원과 힘이 될 것이라는 글이었다. 글=이영주 / 사진=이슬기, 중앙포토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풀백이자 원백. 역대 두 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진출 한국 선수. 안정되고 명쾌한 축구해설가. 모두 이영표를 지칭하는 수식어다. 화려한 이력만큼 삶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이지만, 삶의 철학은 의외로 심플하다. 노력은 반드시 실력으로 증명되고, 성공과 실패는 목표를 향한 동의어라는 것. 지난달 25일 'Great Speech'의 첫 강연자로 나선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정리해 봤다.

#### 철두철미한 자기 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명하다.

노력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나는 어떤 분야든 10년 이상 노력하면 누구나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고등학교 때 줄넘기 2단 뛰기를 1000개씩 매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2년을 했더니 구태여 페이스를 쓰지 않아도 공이 나를 따라오더라.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졌을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을 뛰었다. 세상에는 법칙이 있다. 공 심은데 공 나고 팔 심은데 팔이 나는 것처럼 10시간의 땀을 흘리면 딱 10시간만큼 발전한다. 충분한 노력과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누구나 노력만으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나 역시 비슷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엄청난 연봉 차이로 계약하는 프로선수들을 보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유럽에서 경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풀렸다. 톱클래스의 경기에서는 0.1%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짓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로 어떤 팀은 매번 이기는 팀이 되고, 어떤 팀은 지는 팀이 된다. 그 비결은 간단하다. 노력에는 엄청난 복리의 법칙이 있다. 두께 0.1cm의 A4용지를 한 번 접는 것과 두 번 접는 것의 차이는 0.2cm밖에 되지 않지만, 30번을 접으면 1073km이고 31번을 접으면 2146km가 된다. 노력은 반복할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승리를 만드는 0.1%다.

#### 그래도 실패로 낙담한 경험도 있을 것 같다.

영국 토트넘에서 뭘 때 한 기자에게 '이영표 선수는 어떻게 항상 위로만 올라가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날도 '내 실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밖에서 보는 시선과 자신이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방송시간의 90%를 성공이 아닌 실패담에 할애한다. 실패가 바로 성공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실패와 성공은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성공으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실패로 시작해서 성공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성공으로 방만하지 않게 되고 실패로 좌절하지 않게 된다. 그 후 실패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졌다. 실패는 내가 목표한 지점으로 가는 여정의 단어였다.

####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나?

나도 유럽에서 뛰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지어 부상으로 경기를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즐거워서 시작한 축구였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이유를 고민해 보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 가령 시험에서 50점을 맞았다고 치자. 이 점수를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다. 최고점이 50점이라는 소문이다. 그때부터는 부끄



러웠던 시험지도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평가할 남의 시선이 두려워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스트레스는 사라지게 된다.

#### 감독과의 이야기도 궁금하다.

축구를 하며 총 200여 명의 지도자를 만났다. 나에게 리더십에 대해 정의하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답하고 싶다. 경기 중 주인 없는 공은 정신적으로 준비가 된 선수가 가져가기 마련인데, 공에 반응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도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선수를 긴장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리더십인데 나에게도 히딩크 감독이 그런 리더십을 갖춘 감독이었다. 좋은 전술을 펼쳐도 경기에 지는 지도자도 많이 봤다. 그 전술에 선수들이 기꺼이 따라오게 하는 힘, 바로 거기까지가 훌륭한 리더십이다.

#### 앞으로의 행보를 알려달라.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두 번째 비극에 더 공감했다. 축구로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나 영원한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성공을 이뤄도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 이름은 삭업업(SOCKS UP)이다. 축구에서 넘어진 선수가 일어나기 전 양말을 끌어올리는 행위에서 착안한 것이다. 실패에 낙담한 사람, 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을 하고 싶다. 기업 강연을 하지 않는 내가 현대건설의 강연을 수락한 이유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된다는 것이었다.

#### 건설업계 국가대표로 해외 무대에서 뛰고 있는 현대건설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해외 무대에서 느낀 점은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두려움은 상대의 실력을 모를 때 증폭된다. 유럽에 진출하기 전에도 그들의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들과 부딪히면서 두려움은 점차 상쇄됐다. 상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전술은 뭘지 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후 실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만나 보니 생동감 넘치고 자신감, 열정으로 가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분들이 일하는 조직이라면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